

과학적 방법과 철학적 수용

글 | 엄정식 _ 서강대 철학과 교수 jsumek@hanmail.net

코페르니쿠스로부터 갈릴레오를 거쳐 뉴턴에 이르는 동안 과학적 탐구의 성과는 참으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자연관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학문적 탐구의 다른 영역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적인 행태도 자연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심중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후에 생물학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심리학이 사회과학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박차를 가하게 되었지만 그 태동은 이미 코페르니쿠스의 시기에 나타났고 뉴턴이 등장할 당시에는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에도 지배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철학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마키아벨리, 심리 상태 · 행동양식을 기계적으로 접근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인들은 행위의 규범이나 척도를 초자연적인 질서에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종교적인 신앙이나 형이상학적인 해석과 상관없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중요시했으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간을 인식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이른바 '개인주의'이며, 개체로서의 인간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사회적 혹은 국가적인 차원의 인식도 개별적인 인간들 사이의 역학관계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보다는 권력이 우선시되고 사변적인 진리보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시되며, 따라서 이성적 판단보다는 그것을 행위로 옮길 수 있는 의지가 더 소중하

게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국가철학 혹은 통치철학으로 체계화한 철학자가 마키아벨리였다.

마키아벨리가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코페르니쿠스가 아무 선입견 없이 별을 관찰하고 추론에 의해 천문학적 결론에 도달했듯이 그는 정치에 접근하는 기존 방식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애썼다. 과거에 정치철학은 플라톤의 '국가론'이나 '법률'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형태이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실제로 정치적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상적인 통치자와 국가의 이념만 제시된 셈이다. 그것은 천문학에서 우주의 중심이 지구여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코페르니쿠스가 그러한 접근 방식을 '거부'했던 것처럼 마키아벨리는 정치적 현실과 도덕적 당위를 구분해서 통치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군주론에서 "나의 의도는 탐구자가 실제로 사용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하므로 사물을 상상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일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마키아벨리가 관찰한 인간은 여전히 이성적인 데가 있지만 동물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이고 겁쟁이일 뿐 아니라 탐욕스럽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반항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군주는 필요한 경우 악인이 되어 불안을 조성하고 공포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중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그는 특히 강조한다. 여기서는 인간이 지닌 정열의 역학을 부각시키는 것으로서 군주가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려면 대항하는 힘과 맞먹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역학의 탄생은 인간의 심리 상태와 행동양식을 양화하거나 기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인간의 본성을 귀납적 방식에 의해 기계적으로 해명하고 행동양식을 역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정치적 현실에서도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도 심층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쇼펜하우어를 비롯해서 많은 논자들이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여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에 대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철학사에서 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과학자들이 기독교적 전통의 모든 세력에 맞서 의식적으로 가치중립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가 정치적 현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 때문이다.

훔, 신에 관한 지식도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확신

과학적 탐구의 방법이 철학적 문제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된 데는 데이비드 훔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뉴턴이 물질의 세계에 관한 한 모든 것을 해명했다고 굳게 믿고 자신을 '인간학, 혹은 정신세계에서의 뉴턴'으로 자처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철학적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우선 뉴턴이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의 관계를 역학으로 설명한 것처럼 관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연합하여 지식을 형성하는지 해명하기 위해 그는 이른바 '연합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아무리 고매하고 추상적인 지식도 감각적 지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기억력과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관념들을 형성하는데, 이 관념들은 다시 인과성과 근접성, 유사성 등의 법칙에 따라 사물에 관한 인식을 이루어 낸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이 훔이 말하는 정신세계에서의 역학인 셈이다.

훔은 이러한 경험론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철학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외부 사물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아나



데이비드 훔



마키아벨리

신에 관한 지식도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을 감각적 지각을 근거로 하여 역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우리는 '경험되는 자아'를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경험하는 자아'를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결국 그는 이 주체적 자아는 허구이며 '지각의 다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다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경험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신의 문제를 다룰 때도 그는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훔은 우리 중에 아무도 신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추론'의 결과이며 그 믿음이 간접적이고 모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한다.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지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러한 느낌은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훔의 입장인 것이다.

훔의 입장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그랬던 것처럼 철학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등장 이후 서양철학은 분명히 그 모습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철학 자체를 과학화하려는 마르크스의 시도를 마키아벨리로부터 어느 정도 예견할 수가 있었고, 훔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는 현대의 과학철학이나 분석철학의 형성은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마키아벨리는 정치학이 하나의 사회과학으로 성립되는데 초석을 마련했으며, 훔은 사회과학의 근간인 심리학의 가능성을 제시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㉔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